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 점검

우아미*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어 오랜만에 학교에 가니 ‘Learn how to learn’이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자’라니, 그것은 당시 공부하는 데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나에게 매우 솔깃한 문구였다.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지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학습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실천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새 학기를 한 주, 두 주 보내면서 나는 다시 위기감에 빠지기 시작했다. 2학년이 되어 전공 수업을 들어보니, 1학년 때 교양 수업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다가는 학점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전공 분야에 대해 뭐라 당당하게 말할 수 없게 될 것만 같았다. 대학 생활에 적응해나가면서 학습 능력이나 학습 태도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요령만 늘어나는 것 같기도 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발표도 토론도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걱정도 들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나는 현재 나의 학습 방법이나 학습 태도를 진단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무언가를 찾게 되었고, 일전에 보았던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떠올렸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며칠 전, 다행히도 나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었다. 매주 목요일에 네 시간이나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이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2학년

부담스럽기도 했으나, 이 프로그램이 내가 겪고 있는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더 컸다.

‘Learn how to learn’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사실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학습 이론이나 학습 전략들을 소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을까 하고 우려했는데, 학습 이론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어서 앞으로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즐거운 책읽기’는 독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그 중에서도 토요일자 신문들의 북 섹션이나 「뉴욕타임스」의 북 리뷰를 챙겨 읽으라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학습 전략 II: 시간 관리 전략에서 노트 작성까지’는 다양한 학생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해주셨는데, 시간 매트릭스를 통해 일의 우선 순위들을 나누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여러 주제들 중에서도 내게 특히 도움이 되었던 것은, ‘리포트, 이렇게 쓰자’와 ‘토론의 이론과 실제’였다. ‘리포트, 이렇게 쓰자’ 프로그램의 내용은 문제제기에서부터 인용법까지, 리포트를 쓰는 전 과정을 모두 다루었다. 수업 시간이나 글쓰기교실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쓴 글들을 가지고 어떤 글쓰기가 올바른 글쓰기인지 살펴보면서 내 글쓰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에 대한 서평과 사회과학 도서의 서평은 다르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과학 도서의 서평은 그 책의 내용에 대해 비판적이고 가급적으로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문학 작품 서평의 경우에는 작품 자체가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기보다는 각자의 주관적인 인상에 대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리포트를 쓰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고 실제 학생들이 쓴 글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무리 작가 개인의 주관적인 작품이라 할지라도 논리적이고 가급적이면 객관화하여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중호 교수(교육학과)는 4월 7일 워크숍에서 참가 학생들에게 창의력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했다.

‘토론의 이론과 실제’ 수업에서는 토론의 종류나 구성 요소와 같은 이론적인 개념들도 다루었지만, 실제 토론 상황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거나 질문을 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도 배웠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평소 나의 토론 자세를 돌아켜보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는 토론을 할 때에 의견과 결론을 먼저 명확하게 밝히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근거를 이야기하고 의견과 결론을 나중에 밝히는 편이었다. 그러다보니 말이 장황하게 늘어지게 되어, 상대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단번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토론 중간중간에 나와 상대의 입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점검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내가 가진 문제점 중 하나였는데, 이로 인해 이미 서로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이 토론하거나 현재 상대의 의견이 분명히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토론의 이론과 실제’ 수업을 듣기 전에는 이러한 나의 토론 자세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막연히 토론

에 쭈뼛거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지, 토론할 때에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합리적 토론의 기법들을 배우면서 주장을 펴거나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Learn how to learn' 프로그램은 나 자신의 학습 태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프로그램의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의 시간이 학생들의 수업이 비교적 많은 목요일 2시, 4시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수업 시간과 프로그램의 시간이 겹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프로그램을 듣다가도 다음 수업 때문에 중간에 나가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시간대를 학생들의 수업이 비교적 적은 금요일이나 주말로 옮기거나, 한번에 네 시간씩 하지 말고 시간을 나누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또한 프로그램이 '신입생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생님들께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를 비롯한 2, 3학년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당황하셨던 기억이 난다. 결국 선생님들께서 신입생들의 학습 전략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시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신입생은 신입생대로 아쉬웠을 것이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혹시 잘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부를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공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학습 방법이나 태도에 문제는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Learn how to learn'은 과연 내가 지금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